

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

<’25.09.10., 한-EU연구협력센터>

○ EU 집행위, 2028-2034년 EU 장기 예산 제안 최종 확정(9.3)

- 집행위는 2028-2034년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 완성을 위한 7개 부문별 (단일시장·관세, 사법, 유라툼, 원자력 안전협력·해체, 리투아니아 원전해체, 해외영토연합, Pericles V) 법안을 채택. 이번 법안 채택으로 집행위는 2028-2034년 차기 장기 EU 예산안을 최종 완성했으며, 이는 현재 가격 기준 약 2조 유로 규모에 해당
- 그중 유라툼 연구훈련 프로그램에 2032년까지 67억 유로, 전체 MFF 동안 총 98억 유로가 지원되며, 원자력 안전·보안·방호, 방사선보호, 방사성 폐기물 관리, 의료 등 비발전용 핵기술과 핵분야 핵심 역량 유지 및 발전을 포함하고, 예산의 절반 이상은 EU가 참여하는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 ITER에 배정되어 핵융합을 대규모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FP10 향한 길, 여전히 빠진 세부사항(9.4)

- 집행위가 제안한 1,750억 유로의 FP10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계는 독립 프로그램으로 유지된 점은 환영하나, 유럽경쟁력기금(ECF)과의 재정 집행 방식, 단순화 방안, 방위 연구 편입 문제 등이 불명확. 이에 브뤼셀 연구 로비단체와 유럽의회 엘러의원은 집행위에 FP10 제안 미비점 보완 요구

○ 유럽단일연구공간(ERA) 공공의견 수렴 ... 지출목표, 참여국 확대, 성평등 문제 제기(9.3)

-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을 법제화하려는 계획은 연구계에서 대체로 환영받았으나, 연구개발 지출 목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R&D 지출 목표를 GDP 대비 최소 4%로 상향 주장)
- 참여확대국이 ERA에 더 많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과, 성평등 문제에도 집중. 특히 성평등 요건 없이 우수성에 기반한 대규모 연구비 지원 체계가 소규모 네트워크에 자원을 집중시켜 성평등 및 과학적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경고

○ (기타) ▲집행위 유럽의회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 2025)(9.10) ▲유럽 최초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 JUPITER 공식 출범 ... 유럽 슈퍼컴퓨팅의 새로운 시대 개막(9.5) ▲집행위 기술역량 담당 집행위원, Erasmus+가 유럽 의존성 줄이는 역할을 해야(9.9) ▲Biodiversa+ 파트너십, 생태계 복원 관련 공모 개시(9.9)